

전남 어가 2만1800가구 전국 최고

농가인구 39만명으로 두번째… 전국 어가 5년새 18% 급감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농가와 어가 인구가 5년전보다 크게 감소한 가운데 전체 인구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하락 추세를 이어갔다.

29일 통계청이 밝힌 '2010년 농림 어업총조사 임정집계 결과'에 따르면 전남의 농가는 39만6000명으로 경북, 경기의 이어 가장 많았으며 전업 농가비중도 경북(62.1%)에 이어 60.5%로 두번째로 나타났다. 또한 시도별로 어가는 전남이 2만1800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어가 인구도 5만500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체 임가에서 전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경북(25%)에 이어 14.6%로 두번째로 나타났다.

◇농가인구 5년간 10.7% 줄어-감소폭 둔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농가 인구는 306만8000명으로 2005년보다 10.7%(36만6000명)가 줄었으며 여자 가구원 비중은 50.9%로 남자보다 1.8%포인트가 높았다. 전체

인구에 대한 농가 인구의 비중은 1990년에는 15.3%였으나 1995년 10.9%, 2000년 8.8%, 2005년 7.3%, 2010년 6.4% 등으로 낮아졌다.

시도별 농가인구는 경북이 49만 2000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41만 3000명, 전남 39만6000명, 충남 39만 5000명 경남 34만8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농가 규모도 117만7000가구로 2005년보다 7.5%나 줄었으며 5년전 대비 감소율은 1995년 15.1%, 2000년 7.8%, 2005년 8.0% 등으로 2000년 이후둔화했다.

1년 동안 농업 이외 일에 1개월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전업농가는 63만2000가구로 5년전보다 20.6%나 급감했으며 경업농가는 54만6000가구로 2005년보다 14.5%가 늘었다.

전업농가 비중은 경북(62.1%), 전남(60.5%), 경남(56.9%) 순으로 높았고, 제주(33.6%), 특별광역시(39.7%), 경기(40.8%) 등은 전업농가 비

종이 낮은 곳으로 분류됐다.

쌀 농사는 줄어든 반면 채소나 과수 농가는 늘었다..

◇어가 6만6000가구-5년새 17.7%

감소= 어가는 인구 고령화, 어선 감적사업, 어족 자원 감소 등 영향을 받아 2005년 조사 때보다 17.7% 감소한 6만6천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가구 중 차지하는 비중은 0.6%로 변화가 없었다. 전체 임가에서 차지하는 시도별 비중은 경북(25%), 전남(14.6%), 경남(14.1%), 전북(13.4%)의 순이었다. 임가는 경남(-25.7%)과 충남(-12.5%)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모두 늘어났다. 충북(22.0%), 제주(19.7%), 강원(15.4%) 등 3곳은 10%가 넘게 증가했다.

임가 인구는 171만1000명으로 2005년보다 22.6%나 감소했다. 가구당 어가 인구는 2.6명으로 0.2명이 줄었다.

시도별로는 전남의 어가 인구가 5만

5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2만 8900명), 충남(2만7300명), 제주(1만 4600명), 경북(1만400명)이 뒤를 이었다.

어가 중 전업어가 비중은 28.4%로

5년전보다 3.3%포인트가 감소한 반면 경업어가 비중은 71.6%로 증가했다. 경업가구 비중이 커진 것은 다른 산업 종사 가구원 증가, 어가 수입구조 다양화 등의 영향에 따른 것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임가 9만5000가구-1.8% 감소-

전업 임가는 24% 급감= 전국의 임가는 9만5000가구로 2005년보다 1.8%(2천가구)가 줄었지만 전체 일반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로 변화가 없었다. 전체 임가에서 차지하는 시도별 비중은 경북(25%), 전남(14.6%), 경남(14.1%), 전북(13.4%)의 순이었다. 임기는 경남(-25.7%)과 충남(-12.5%)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모두 늘어났다. 충북(22.0%), 제주(19.7%), 강원(15.4%) 등 3곳은 10%가 넘게 증가했다.

임가 인구는 25만7천명으로 5년전보다 4.6%(1만2천명)가 줄었고, 가구당으로는 2.6명으로 0.1명이 감소했다. 여성 비율이 50.1%로 조금 높았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임가 비중은 0.5%로 하락했다.

/최재호기자 lion@·연합뉴스



광주 북구 매곡동 이마트 입점자 시민대책 위원회원들이 29일 북구청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매곡동 대형마트 건축허가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대책위 “매곡동 이마트 건축허가 감사의뢰”

내일 이마트 본사 항의방문

광주 매곡동 이마트 입점 저지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9일 오전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형마트 건축허가가 적법했는지 북구청에 철저한 자체 감사와 광주시, 감사원, 검찰 등에 감사의뢰와 고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증거부처와 서울시, 부산시 등 다른 지역 자치단체, 건축전문가 등에 질의한 결과 건축허가는 허점이 많다는 답변을 받은 결과 명백한 불법 이었다”며 “북구청은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특히 국토부에 질의된 유사사례를 예로 들어 “대형마트 부

지 내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법에 따라 판매시설로 구분되고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연결한 통로는 허가 신청자의 편의를 고려한 불법이다”며 “연결 통로는 보행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도록 한 것으로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m 이하로 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보행자의 이동 편의가 아닌 사업자 편의를 위해 8m 이상 2개소 씩 각 층마다 설치해 근린생활시설도 대형마트로 활용하도록 불법 허가해 신청자를 도왔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판매시설의 경우 자연 녹지지역 건폐율 20% 규정을 어겼고 녹지지역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 공작물도 명백한 불법이다”고 덧붙였다.

중소상인 살리기 광주네트워크와 대책위는 오는 31일 시의회,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대표단과 함께 서울에 있는 이마트 본사를 항의방문할 예정이다.

북구 관계자는 대책위의 주장에 대해 “건축법에 따라 일반 주거지역과 자연 녹지지역에서 허용하는 각각의 용도를 따져 심의했다”며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연결한 연결통로는 건축신청자 편의를 위해 규정을 어겼다는 주장도 ‘지난 2008년 10월 29일 법을 개정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건축허가된 연결통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규모는 적합하다’고 해명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국인삼공사 ‘정관장’ 북경 진출



글로벌 브랜드 ‘정관장’이 중국의 수도 북경에 진출했다.

한국인삼공사(사장 김용철)은 지난 25일 중국 북경(北京)에 영업점 및 프레그리스토어(FS)를 개설했다.

중국 화북지역 ‘정관장’ 사업에서 중국인삼공사(사장 김용철)은 지난 25일 중국 북경(北京)에 영업점 및 프레그리스토어(FS)를 개설했다.

FS의 컨셉은 복합개념의 ‘정관장’

고객쉼터’로 방문객들에게 상품안내, 흥삼관련 불거리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한편 정관장은 지난 2009년 10월 상해에 현지법인 설립 후 2011년내 중국 전역 5개 지사 체계 구축을 통해 중국 주요 도시에 100여개 직영점 개설과 대형 중약유통망과의 제휴, 온라인, TV홈쇼핑 런칭 등을 꾀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오는 2015년에는 중국시장에 5억달러를 판매한다는 야침찬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인원과 조직을 다지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순천북부·담양·여서새마을금고 ‘경영 우수’

새마을금고연합회 광주전남지역 본부(본부장 이호상)는 30일 회순 하나원문화스포츠센터에서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종택 회장, 최희삼 부회장을 비롯해 108개 새마을금고 이사장, 실무책임자 등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 광주전남새마을금고 경영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영평가대회 경영우수금고

에 순천북부새마을금고, 담양새마을금고, 여서새마을금고가 선정됐다.

경영평가대회는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우수금고에 대한 포상과 격려를 하고 새마을금고의 선진경영을 위한 혁신과 변화의 계기로 삼기 위해 매년 한 차례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롯데백화점 1~3일 ‘와인 박람회’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다음 달 1~3일까지 와인을 할인해 파는 ‘와인 박람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도권 모든 지점(부평·안산점 제외)과 부산·대전·동래·창원·센텀시티·광복점과 동시에 열린다.

국내 최대 와인 수입사 금양인터내셔널과 롯데아사히주류, 롯

데주류, 까브드랑 등 수입사 9곳이 2000여종에 걸쳐 와인 23만병을 최대 80% 할인 판매한다.

고내파를 딸보 07(할인 4만원), 사또 페리에르 06(〃 6만원), 사또 샤스 스플린 07(〃 5만5000원) 등 고급 와인과 빌리웹(〃 2만원), 무뚱까데 레드(〃 2만원) 등 인기 제품이 할인판매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우값 하락세 1년 내 최저… 삼겹살은 쑥쑥

구제역 여파로 한우 소비가 줄어들면서 한우 소비자 가격이 작년 3월이나 구제역 발생 이전에 비해 20% 가까이 떨어지면서 작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aT(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한우 등식 1등급 500g의 가격은 전날 2만9387원으로 작년 3월의 평균가격 3만6548원, 구제역 발생 이전인 작년 11월의 평균가격 3만6335원에 비해 각각 19.6%, 19.1%씩 떨어졌다.

aT 관계자는 “구제역 영향으로 한우 소비가 별로 위축되지 않은 가운데 대량 살처분 및 이동제한으로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에 전날 기준 국내산 돼지고기(삼겹살) 가격은 500g당 9537원으로 작년 3월 평균가격 7317원이나 구제역 발생 이전인 작년 11월 평균가격 8311원보다 각각 30.3%, 14.8%가 올랐다.

돼지의 경우 구제역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별로 위축되지 않은 가운데 대량 살처분 및 이동제한으로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가축이 동제한조치가 대부분 해제돼 29일 현재 충남 홍성군만 이동제한 대상지역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가축이 동제한은 한때 11개 시·도 75개 시·군에 이르렀었다.

/연합뉴스

원적외선의 웰빙 및 에너지 절감기 출시

울트라는 웰빙 및 신개념 절전시스템으로 일석삼조효과 입니다.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웰빙

- 조명 및 전자제품에서 방사된 원적외선은 친환경과 인체 신진대사 및 경력 순환에 탁월함.
- 학생 공부방 스텐트 조명기구에서 원적외선 방사
 - 조도 3~4%이상, 실내공기 정화
 - 몸의 컨디션 향상
 - 공부 집중력 향상
- 전기메트에 원적외선 방사로 전자파 중화 및 치료효과
- 병원 물리 치료실과 사우나실의 원적외선 기기 활용
 - 온열요법 중 가장 강한 열작용으로 어깨 뼈근육과 근육 피로해소
 -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영양공급 균형유지
 - 인체 적정 수분 유지
 - 노폐물, 독소 배출 촉진 및 냄새 중화

친환경 체험 웰빙

- 김치, 육류 야채, 과일등 맛과 신선도 향상(특히 김치 맛 최고)
- 전자파, 정전기, 수백파 증화작용
- 냉장고 보관 식품에서 나는 냄새억제
- 조명기기, 냉장고, 냉난방기, 컴퓨터 등 성능 및 수명 2배 이상 연장
- 어항(수족관) 속 이끼 방지, 물이 깨끗해지고 죽지 않음, 물속에 용존산소 농도가 높아짐
- TV, 컴퓨터 화질 선명도 향상

대리점 및 컨설팅 모집

시·군·구 각 1개소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 4동 926-3(2층)
직통 070-4111-6661 H.P 010-8772-0094
팩스 062-362-6661

직 | 원 | 모 | 집

▪ 모집요강

모집구분	인원	자격
전 기 기 사 (전기산업기사)	0 명	수전용량 6,000KW이상 전기설립 가능자 (경력자 우대)

- 근무처 : 광주세정아울렛 관리사무소
- 급여 : 협의후 결정
- 복